◇한마음선원 신축새법당이 6년만에 완공, 18일 입주법회를 연다.

한마음선원 새법당 완공

18일 입주법회 …5층건물에 45개 선방 갖춰

서울 수도권의 초대형 포교수행 공간으로 들어설 안양 한마음선원(선원장 대행) 신축 법당이 6년여 공사 끝에 완공돼 18일 오전 11시 입주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대행스님의 특별법문과 지난 93년4월 기공식 이후 경과보고, 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3층 법당옆에 지하4층 지상5층의 최첨단 초현대식 건축물로 증축한 신축 법당은 대지 1,032평에 연건평 2,910평으로 조성됐다.

신축 법당은 5층에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8평 규모의 대웅전을 비롯 2층 3층 4층에 150평 크기의 법당이 들어선다. 특히 대웅전의 단청은 전통양식을 탈피한 독창적인 문양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선방만도 45개실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법당의 방송 통신 전산시스템은 위성케이블을 통해 전국 및 해외지원을 연결, 법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동시에 중계할 수 있는 기능을 완비했다. 또한 소방시설도 전자동 최첨단의 기능으로 구비됐으며, 지하2층부터 4층에 이르는 주차장에는 총 86대가 동시주차할 수 있다.

한마음선원은 앞으로 준공 낙성법회 이후 수행과 문화 포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지역사회에 뿌리는 '전법씨앗'

금강정사 거사회 가정법회

8년째 매월 모임…가족애로 뭉쳐

올부터 결식아동 · 불우노인 돕기

"자비원력 넓고 깊고… 대자대비 관세음께 귀의합니다…"

8일 저녁 8시 서울 고척동 경남아파트 202동 703호.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 거사회의 가정법회가 열리는 현장. 일과를 마치고 일터에서 발걸음을 재촉해 모여든 40대~50대 거사들의 우렁찬 독경소리에 온갖 스트레스로 내려앉았던 어깨에 다시 힘이 솟는다.

금강정사 기초교리반교육을 통해 불교에 입문한 거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거사회(대표거사 임승학)의 회원은 총 59명. 8년전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저녁 가정법회를 해오고 있다. 거사회는 때로 법당에서 모임을 갖고 주지스님의 법문도 경청한다.

현문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가정법회에는 〈한글천수경〉 봉독을 시작으로, 석가모니불 정진과 축원, 〈반야심경〉 봉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식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회 활동계획을 비롯해 그달 회원동정과 대소사를 화제로 삼아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정법회의 법둔시간이다.

"순회 가정법회를 통해 회원과 그 가족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애정도 갖게 되고, 가정에서부터 전법의 씨앗을 뿌린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윤종건씨는 말한다. 또 이한명씨는 "사회에 나온후 한동안 제대로 신행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거사회 가정법회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사회는 올 하반기부터 결식아동돕기와 불우노인돕기 등의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활동범위를 넓혀나가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사월초파일에 아기동자승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어 금강정사 내 1천 가정에 나눠주고, 다 채워진 저금통을 회수해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정사 거사회는 이밖에도 사찰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절 살림을 함께 꾸려가고, 절살림이 제대로 운영됐는지도 조목조목 살핀다. 그래서 거사들은 "우리가 금강정사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대표거사 임승학씨는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금강정사 거사회의 가정법회는 건강한 불자가정을 이루고, 튼튼한 포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 바람직한 신행포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신도회장 정수근씨의 집에서 열린 4월 가정법회에서 거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독경을 했다.

우리절 불사 비슬산 임휴사

◇2년간의 공사끝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임휴사 극락보전과 삼성각, 요사채. 원내는 주지 정혜스님.

21세기 종합복지관 건립

96년 마야유치원 개원 극락전 삼성각 곧 완성

교육 및 도량불사에 이어 복지불사까지 꿈꾸는 종합수행도량이 있다.

921년 신라 경명왕때 영조대사가 창건한 대구 비슬산 임휴사(주지 정혜)가 바로 그 곳.

지난 96년 마야유치원을 개원해 인재불사의 초석을 마련한 임휴사는 97년부터 20여억원을 들여 극락보전과 삼성각, 요사채 중창을 시작해 단청과 석축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봉불점안식은 부처님 오신날 이전인 음력 3월말경 봉행할 예정.

극락보전과 요사채는 각각 50평 규모로 극락보전의 경우 내외포 합쳐 12포의 닫집이 유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최근들어 임휴사는 입지상 매우 비중있는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인근에 월성, 상인, 대곡지구등 메머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일대 인구만 약 35만여명으로 늘어난 것.

비슬산 초입에 자리한 임휴사는 도심가까이 있으면서도 때묻지 않은 전통고찰로 새벽이면 기도객들의 발길이 잦은 관음기도도량이다. 250m지하에서 샘솟는 약수도 주민들의 발길을 끄는 자랑거리로 위장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휴사에는 재미있는 실화가 전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과의 팔공산 전투에서 패한 뒤 비슬산으로 도망갔는데 은적사(隱迹寺)와 안일사(安逸寺)에서 잠시 몸을 숨긴 뒤 임휴사(臨休寺)에 이르러 비로소 안심하고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절이름이 임휴사로 불리었다고 한다.

임휴사는 대망의 2천년대에도 불사로 문을 연다. 누각과 삼층석탑에 이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청사진을 세워 놓은 것. 7백여평 규모의 복지관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얼마전 조계종 교육국장에서 총무원 호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주지 정혜스님은 "前주지 혜담스님께서 많은 불사를 추진해 놓으셨다"면서 "2천년대를 대비한 이번 불사가 끝나면 임휴사는 지역포교의 거점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보살계 수계법회 잇달아

수덕 · 대흥 · 범어 · 쌍계사 등…"보살정신 되새기자"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주는 보살계 수계법회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특히 수덕사와 쌍계사, 대흥사는 보살계 수계법회에 큰스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의 한국불교를 되살리자는 취지도 함께 부여해, 침체된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22일 오전 11시 만공대선사 탄신 128주년 기념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수덕사는 만공스님의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이어 근대불교의 선맥을 진작시켜 중흥을 이룬 스님의 뜻을 계승하자는 의미로 보살 계수계법회를 연다. (0458)337-6565.

하동 쌍계사(주지 도리천)는 20일 오후 2시에 입재하여 22일 오전 12시에 회향하는 제24회 보살계수계법회를 연다.

쌍계사는 이와함께 21일 오후 8시 육조봉찬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22일 오전 8시 정대불사와 10시 육조종제를 봉행한다. (0595)883-1901

해남 대흥사(주지 법선)는 5월 10일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서산대사 탄신 4백79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보살계법회는 스님의 호국정신과 국난극복의지를 본받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발원한다. 대흥사는 이와 함께 서산대사 탄신 4백79주기 기념법회와 제 5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도 연다. (0634)34-5502.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도 28일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입재식을 갖고, 30일 회향할 계획이다. (051)508-3122

서울 능인선원(주지 지광)은 5월 1일 제 27회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계사로 1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두차례에 걸쳐 열린다.

(02)577-5800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주 BBS 회관입주 취소 물의

충북불교회관측 "계약 파기땐 손배청구"

청주불교방송(사장 도공스님)이 충북불교문화회관 입주약속을 돌연취소하면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불교문화회관(추진위원장 이만호)은 지역포교공간 마련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상량식을 갖고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공사를 추진해왔다.

◇60% 공사가 진행중인 충북불교문화회관.

이후 청주불교방송이 충북불교문화회관에 입주의사를 통보하며 지하1층 발전실, 입주 실평수 1백80평, 3층에서 옥상까지 비트이용 케이블설치, 전기용량 5000kw이상 등 방송국 시설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충북불교문화회관은 설계변경(변경비 1천5백만원)하여 1개층 1백80평을 늘리고(6억 4천만원), 층고높이 조정및 방송시설에 맞게 건물을 지어왔다. 이로인해 38억의 공사비가 52억으로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올해 5월에서 10월로 변경됐다.

최근 충북불교문화회관 건립추진위가 청주불교방송에 '방송시설 이설계획'을 세워달라는 업무협조공문에 대해 청주불교방송은 3월 25일 14차 운영위회의를 열어 사옥이주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의하고 최근 청주불교방송사옥수습대책위를 구성했다.

청주불교방송은 임대보증금 마련이 여의치 않고 입지조건이 유흥가를 끼고 있으며 입주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등을 들어 충북불교문화회관 입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충북불교문화회관 이만호 추진위원장은 "책임없는 결정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큰 만큼 이에대한 납득 할만한 해명이 있었으면 한다"며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인 손해배상도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도 삼보정재의 낭비인 만큼 원만히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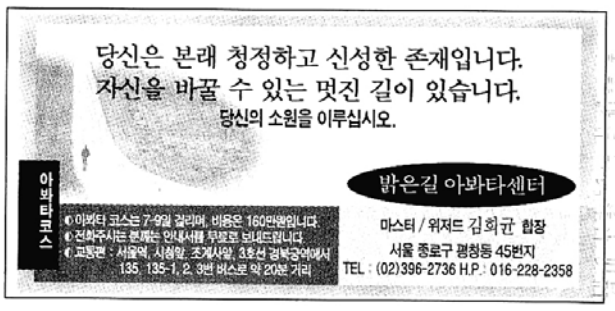
해인사 부산포교원 '명진사' 10일 개원

해인사 부산포교원 명지사(주지 수인)가 10일 북구 모라동에서 개원됐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명지사는 1백85평 규모에 80여평의 법당과 공양간, 사무실을 갖추고, 본격적인 도심포교를 시작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법.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국제합동 Avatar 아봐타-코스

KOREA INTENSIVE AVATAR COURSE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모든 만물을 낳고 자성이 본래 오고감이 없음을 당신은 아봐타 코스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1999년 5월 1일~5월 9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대규모 합동 아봐타코스를 개최합니다.

국제트레이너 세분을 초청하여 열리는 이 코스는 최고의 영적깨달음의 축제가 될 것이며 참가자 전원이 함께 숙박을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아봐타 행법을 9일간 계속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200만원이며(숙박포함) 신청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인 아봐타코스에서 깨달음의 진수를 체험하십시오.

☞전화주시는 분에게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청마감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慧元 아봐타 센터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3 은혜빌딩 2층
·TeL : 02)579-9379, 02)575-5776 FAX : 02)572-5514

불상점안 권선문

불교란 일심을 수련하여 번뇌의 속박으로 부터 해탈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종교인 것입니다.

불상이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표상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귀의토록하는 집심의 존상이며 근행기원에 있어 무언의 감화와 위신력을 드리워 주는 절대의 대상인 것입니다. 불상이란 곧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약수암"에서는 오랜 기도정진 끝에 수백년된 영험 있는 불상을 한분 모셔올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맺어 여러 불자님들께서 두루 동참하실 수 있는 인연을 맺어 드리고져 점안 행사시까지 신남신녀 여러분들의원호를 바라오니 특별하신 신심으로 인연을 맺으시어 영험있는 불상복장 불사에 동참 하시어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 점안일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 약사여래 기도 도량
지리산 약수암 TEL (0671)625-6831
주지 무 각 총무 법 행 두손모음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 183-2

동참금 1인당 : ₩10,000
온라인 농협 024-02-098803 엄길호
불사기간중 인생 상담 무료
접수하신 분들은 점안일시까지 특별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1기 佛敎儀式(범음 · 범 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원서접수 : 1999년 5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1999년 5월 3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제13기 불교지도자를 위한 불교학과 법사과정 학인모집(1년과정)

불교는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정을 대승불교의 발전사에 맞춰 꼭 알아야 할 것만 가르쳐 드립니다. 한국불교의 포교를 전담할 지도자스님, 법사,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개설된 도량입니다.

1. 교과목: 불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소승불교의 이상과 실천, 대승불교, 정토불교, 법화경 읽기, 반야심경과 공, 밀교의 세계, 천수경 읽기, 불교와 예술, 중국불교와 선, 한국불교, 비종교등.
2. 교수진: 동국대학교수 및 교계 권위있는 각 과목 전공교수
3. 정 규 : 통신 각 00명
4. 강의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5. 개강일시: 1999년 4월 24일
6.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7. 특 전: ① 승려후보생의 수계등록 ② 법사자격 취득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02) 741-0495, 0496 FAX : 765-3169
海東佛敎梵音大學
海東佛敎儀式敎育院